

저 하늘에 내 집 있으니

신윤식

저 하늘에  
영원히 설 내 집 있으니  
이제 오라고 하실  
그 날만 손뚱아 기다리며  
나 살고 싶어라



흐르는 세월까지  
불잡고 싶은  
한없는 욕망에 눌러  
불평만을 흘리며  
절름대고 걸어온 길

아무런 아쉬움 없이  
시원하다 소리치며  
바람에 다 내어주고  
가벼운 그 길로  
나 가고 싶어라

영원한 내 집  
저 하늘에 있으니  
세상이 걷는 길에  
좁은 경계선을 긋고  
그 분 손에  
불들려 가는 그 길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이리라

# MATHETES

제23권

## 39

2015년 9월 27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55:8)

 **은석교회**  
GOSPEL EUNSEOK CHURCH

[www.onlycross.net](http://www.onlycross.net)

담임목사  
신 윤 식  
시무장로  
이영민 이성희  
협동장로  
조규현

주일오전설교

## 신앙과 점

골 21:18-27

지난주에 하나님은 다시는 칼집에 꽂히지 않을 칼을 빼어 들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도 내 손뻘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에만 있었을 뿐입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고통이 끝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칼을 빼어 들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고 그들의 관심은 현재의 고통이 끝나는 것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온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기를 위해 존재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피조물로 지음 받았는데 그 같은 피조물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는 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을 때 관심

은 미래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래가 어떨지, 또는 자기 자식의 장래가 어떨지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술가, 즉 점치는 자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대 사회가 복술을 미신으로 치부하며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라 할지라도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술가를 찾지는 않는다 해도 현대 사회에 퍼져있는 여러 방법을 따라 자신의 미래가 어떨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술가를 찾는다면 그 이유가 복술가 때문이겠습니까? 복술가를 섬기기 위해서, 복술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복술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미래를 알고 미래가 좋지 않으면 좋은 미래로 바꿀 방법을 찾기 위해 복술가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는 관심이 가지고,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신경 쓰이기 때



문일 것입니다.

미 5:12절에 보면 **“내가 또 복술을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복술을 끊는다는 것은 복술가를 찾는 속성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이 복술가를 찾는 것과 동일한 속성이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교회도 보면 능력이 있는 목사, 능력 있는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것이 많고 그것이 복술가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벨론 왕이 점을 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여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아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고 하십니다.

설명하자면 바벨론 왕이 칼을 들고 들어올 두 길을 그리는데 그 출발점이 같은 곳이 되게 하고 성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에는 표지판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길 중에 한 길은 암몬 사람들의 랍바성으로 가는 길을 표시하고 다른 한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는 암몬 나라도 점령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암몬을 치기 위해 군사를 끌고 출발하는데 길이 두 갈래로 나뉘집니다. 한 길은 암몬으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남은 것은 바벨론 왕의 선택입니다. 그가 암몬을 치고자 하면 암몬이 먼저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을 치고자 하면 예루살렘에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그는 점을 쳤던 것입니다. 점을 치는 방법은 화살들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는 것입니다. 화살들을 흔드는 것은 마치 점쟁이들이 산통을 흔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화살 두 개에 하나는 암몬이라 적고 하나는 예루살렘이라 적어서 흔들어서 그 중 하나를 뽑아 뽑힌 그것을 신의 뜻으로 여기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에게 묻는 것은 그들의 우상인 드라빔에게 그들의 방법으로 신의 뜻을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피는 것은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의 간의 색깔이나 모양, 크기 등이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제물의 간에서 신의 뜻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은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점괘를 얻고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이 두 길을 놓고 점을 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의 연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바벨론 왕이 점을 치고 점괘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행동한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속성으로 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점괘를 거짓 점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맹약한 자들입니다. 바벨론에 충성하기로 맹약을 했는데 점괘가 자신들을 치라고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점괘가 나온 점을 엉터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이 세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원군을 청하여 대항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그 죄를 기억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령 자신이 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쪽을 선택해야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왕이 점치는 수준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길에서 어느 길로 갈지 점을 치며 신의 뜻을 묻는 바벨론 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길을 그리게 하시고 바벨론 왕이 점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바벨론 왕이 신을 뜻을 묻기 위해 점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바벨론 왕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서 무당이 섬기는 신의 힘을 빌려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점괘가 예루살렘을 치는 것으로 나왔을 때 바벨론에 망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바벨론 편에 있는데 자신들을 치라는 점괘가 나올리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괘가 암문을 치는 것으로 나왔다면 그 점괘를 참된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이기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신의 뜻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술가나 무당들, 그

리고 이방인들이 우상을 앞세워 점을 치며 자신이 원하고 누리하고자 하는 인생을 살려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라 하기에는 낯 뜨거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래가 좀 더 낫기를 소망하고 그 미래를 위해 신을 찾지만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자리와 형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의 도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 됨을 위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믿습니다’ 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조건과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세우셨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현재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이 믿음을 주신 이유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칼을 빼어 들고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밖에서 바벨론 왕이 점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했음을 알았기 때문입



니다.

바벨론 왕은 점괘대로 예루살렘을 치고 그로 인해 왕의 왕관이 벗겨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벨론 왕이 친 점의 점괘 때문일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점치는 종교심까지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기억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왕관이 벗겨지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끊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고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이방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줄 능력 있는 영웅적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부강해지면 자신 또한 부강해 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뜻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대로 왕을 세우게 하셨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왕의 왕관의 벗겨 버림으로 이스라엘 모든 왕의 왕 됨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참된 왕은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참된 생명이 있는 나라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서의 나의 미래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에 있다면 믿음을 자라게 해서 좋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뜻 또한 자신에게 좋고 유리한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이것은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이 칼을 빼어 들고 분노하시는 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외면한 채 탄식이 없는 현재의 기독교의 모습이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점을 치듯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의 죄에 분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죄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서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알았다고 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잘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 갈 자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모든 죄를 덮으시고 죄 없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신자는 자기 미래에 대해 염려하거나 불안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죽는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며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확실히 알고 그 세계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오후설교

(9.6일 설교 80강)

## 전신갑주

### 엡 6:10-12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부딪히고 경험되는 갈등과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덕목과 실천 사항에 해당되는 몇 가지만 잘 지켜 실천하면 믿음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에서는 부딪히고 갈등될 신앙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참된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질 때 필히 기존의 앞과의 부딪힘과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받아들이었을 때 기존의 모든 신앙생활을 부인함으로 다가오는 허망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 때문에 참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오랫동안의 신앙생활로 인해 쌓아진 자신의 공적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는 신앙의 길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의 결과이지 나의 열심이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애당초 무너져야 할 공적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자신의 의지와 열심과 연결된 행함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의 공적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것이 바로 싸움입니다. 흔히 신자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에도 등한시 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과연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마귀의 간계일까요?

바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0,11절)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죄의 유혹을 이겨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고 그 능력으로 모든 죄를 물리치며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귀의 간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용도가 죄를 물리쳐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게으르다’ 고 말할 때 무엇을 기준해서 그러한 말을 합니까? 모두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에 초점을 두고 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고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하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과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 자체가 나올 수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신앙의 근거 또한 자신에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신앙은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은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해체되고 내세울 것이 없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를 한 시간씩 하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뛰어난 실천을 보인다 해도 그 모든 실천이 자신의 믿음과 열심에 의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싸움은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간계를 신앙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고 살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간계는 속임에 빠져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는 인간에게 유리한 말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짓말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 자기를 위해 선악과를 먹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귀의 간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전신갑주는 싸움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 즉 하나님께 속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자신에게 속한 싸움입니다.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싸움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고 이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악한 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한다고 하지 않고 다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한 전신갑주가 아니라 마귀의 간계, 즉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한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속임수를 따르지 않고 참된 진리의 말씀의 길로 가기 위한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조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으며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간계에 빠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체험되는 것을 신앙의 증거로 여깁니다. 눈에 보이고 체험된 것이 있어야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신갑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신갑주가 비록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게 하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 있는 것으로 자랑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하찮게 여길 수 있고 관심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되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진리가 된 의의 세계 안에 있

을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신갑주가 어떻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것이 될까요? 마귀의 간계는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더러운 자에서 점차 깨끗한 자로 변해 가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마귀의 간계이며,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행함에서 그 열매를 찾게 하는 것도 마귀의 간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그리스도의 의의 세계 안에 있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부인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우심으로 인해 의에 참여하게 된 자일뿐이며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의의 행위도 나와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간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면 보이는 것은 자신에게 때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죄의 모습 밖에 없습니다. 만약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며 피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 기쁨으로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신자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신자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속에서 자신을 놓지 않고 붙드시고 의의 세계로 끌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로 굳게 서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에 갇힌 나를 피로 값 주고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존재 이유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수요일설교

(9.23일 설교 69강)

## 이삭의 축복

### 창 27:27-29, 39-40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27-29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7-29절)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보면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그리고 만민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형제들의 주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풍요로움과 만민의 주라는 높음이 약속되어 있기에 세상이 원하는 축복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형제는 혈육관계이지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만약 형제들의 주가 된다면 그것은 형제라는 혈육 관계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삭의 축복은 뭔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후에 사냥 갔던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울면서 자신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에서가 이해되십니까? 이삭의 축복에 집착하는 것은 에서도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축복에 집착하는 것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울면서 축복을 구하는 에서에게 이삭은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7절)라고 말합니다. 축복은 모두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도 축복해 달라며 소리 높여 읊니다. 이러한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39-40절입니다.

에서에 대한 이삭의 축복은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밟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때임을 벗을 때에는 그 땅에서 네 목에서 떨어버리리라 하였더라” 입니다.

에서의 축복을 야곱의 축복과 비교하면에서의 축복은 사실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먼저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라” 고 합니다. 하늘 이



슬과 땅의 기름짐을 약속하는 야곱의 축복과는 분명 상반되는 것이고 풍요와는 달리 빈곤을 연상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또한 에서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아우인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에서를 저주한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의 축복의 내용도 하나님의 언약의 시각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축복과 에서의 축복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일반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이라면 에서에게도 야곱과 같은 축복을 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복을 주었기에 에서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한 것을 보면 복은 어느 한쪽으로만 향하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에 대한 일반적 상식은 복을 받을만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은 야곱보다는 에서에게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든 에서는 야곱에게 속임을 당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향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억울하게 축복을 빼앗긴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에서가 억울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에서 역시 야곱과 다르지 않은 인간일 뿐입니다.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

**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신은 야곱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옳고 야곱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도 에서를 그렇게 평가할까요?

히 12:16-17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에서의 망령됨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음행하는 자와 같이 말합니다. 즉 음행이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나 망령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신부가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신랑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신랑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신랑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도 장자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팔죽 한 그릇보다 더 가치 없게 여긴 것이기에 음행과 동일하게 망령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팽개쳐지게 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자신이 한 그릇의 팔죽을 선택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망령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야곱에게 두는 것이 에서나 야곱이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에서가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에서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 버린 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지 않고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이어 받는다는 것은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장자에서 장자로 이어집니다. 물론 야곱이 이러한 복의 원칙을 알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장자가 복의 상속자라는 것 때문에 그 명분이라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리고 축복에서 버린바 된 에서는 지옥 갔다는 뜻일까요? 성경은 에서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에서를 세워 에서 같은 사람이 망령된 자고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단절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에서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단절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단절된 우리가 어떻게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이삭의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중심은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형제는 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것은 야곱에게 이루어질 축복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에게 이루어질 축복임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축복은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에서는 축복에서 단절됩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야곱의 축복에 참여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축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졌다면 야곱에게 속한 자가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된다면 형제들은 야곱이 주가 됨으로 해서 야곱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에서 단절된 자에게 진짜 축복은 축복을 이어가는 야곱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요셉을 통해 드러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에 의해서 형제들이 구원 받는 것으로 버림받은 자가 형제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주의 위치에 있는 요셉이 종의 위치에 있는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 25:23절에서 말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분으로 오셔서 자신을 버린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큰 자이신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에서 단절된 존재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매인 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한 말이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약 안에 감추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 바랍니다.



##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중등부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금요기도회 오후 7시30



### (부레옥잠화)

### 오늘의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나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 7:3-5)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전 예배

11:00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93장**  
교 독 문 **60(시139편)**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315장**  
성경봉독 **겔 21:18-27**  
설 교 **신윤식 목사**

### 신앙과 점 (47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545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6장**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기도 : **이성희 장로**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오후 예배

14:30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86장**  
기 도 **다함께**  
찬 송 **445장**  
성경봉독 **엡 6:18-20**  
설 교 **신윤식 목사**

### 구하라 (83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366장**  
주기도문 **다같이**

다음주일기도 : **박영선 집사**

### 수요일 예배

19:30 인도: 신윤식 목사

창세기 70강

### 은석소식

1. 신앙은 나는 묻히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신자로써 참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신윤식 목사는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중국에 다녀옵니다.
3. 오늘 오후 예배는 1:10분에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유년부 예배는 생략합니다.